

이슬람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정견을 배우자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결혼의 제 조건을 진지하게 만족시킨다면, 당사자들은 틀림없이 행복하고 본분을 다하는 결혼생활로 순조롭게 인도될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은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 남편과 아내의 행동 방식을 규정한다. 꾸란과 순나사도 무함마드의 언행의 모범)에는 친절과 공평, 연민과 정과 사랑, 동정과 이해성, 인내와 호의를 명하는 말이 많다. 선지자는 자기 가족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무슬림이며, 인생에 있어 가장 크고, 가장 복된 기쁨은 착하고 의로운 아내라고까지 단언까지 하고 있다.

신방을 치르고 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진다. 각 역할은 공평하고, 비례적인 일단의 권리와 의무다. 남편의 역할은 자기 아내를 인내심으로서 친절하고 명예롭게 대우하며, 아내를 명예롭게 보살피 주든지 아니면 결혼의 유대로부터 명예롭게 해방시켜 주며, 아내에게 해나 슬픔을 끼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남편의 엄숙한 의무라는 윤리원칙을 중심으로 한다(꾸란, 2:229-232, 4:19). 아내의 역할은 여자는 의무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권리를 가지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다는 꾸란 구절로 요약된다(꾸란, 2:228). 무슬림 학자들은 통상 이 지위를 다른 구절과 관련시켜 해석한다. 이 구절이 특히 지적하고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보다 뛰어나게 하셨으며, 남자가 자기 재산으로 여자를 부양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수탁자, 감시자, 보호자라는 것이다(꾸란, 4:34). 이 지위는 분업과 역할 분화에 따라 가정 내에 생긴, 사회 학자들의 소위 “수단적 리더십” 혹은 외적 권위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절대적 차별이나 남자의 여자에 대한 우월을 뜻하지는 않는다.

(1) 아내의 권리 : 남편의 의무

이들 윤리원칙이 행위규칙으로 구체화되면, 이에 따라 여자에게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배당된다. 꾸란과 선지자의 순나가 여자에게 친절하라 명했으므로 자기 아내와 화합하여 공평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남편의 의무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한 가지 특별한 결과로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전적으로 부양할 책임을 진다. 남편은 이 부양 의무를 기꺼이 이행하되,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하며,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생색내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부양의 내용 : 부양은 의식주와 전체적인 보살핌, 안녕

에 대한 아내의 논쟁의 여지없는 권리를 수반한다. 아내의 주거는 아내에게 합리적 수준의 프라이버시·안락·독립을 보존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아내의 안녕과 결혼의 안정이 급선무다. 주거만 그런 게 아니라 의복·음식·전체적인 보살핌 역시 마찬가지다. 아내는 남편의 재산과 자신의 생활 양식에 맞춰 남편에 의해 입혀지고, 먹여지고, 보살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무절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행사하는데 인색해서도 안 된다.

물질외적 권리: 물질적 권리만이 아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내는 이외에도 윤리적 성격을 띠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 역시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있고 구체적이다. 하나님의 법은 남편에게 자기 아내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아내의 감정을 존중하며 아내에게 친절과 이해심을 보이라고 명한다. 남편은 아내를 혐오해서는 안 되며 아내가 불확실하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불안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의 당연한 결과로서, 남자는 아내에게 해를 입히거나 아내의 자유를 가로막을 작정으로 아내를 데리고 있을 수 없다.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거나 동정하지 않을 경우 여자는 결혼의 유대를 풀어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그녀의 사생활을 방해할 수 없다.

(2) 아내의 의무 : 남편의 권리

결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아내가 지켜야 할 주된 의무는 가급적 결혼 생활을 원만하고 행복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의 안락과 안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남편을 화나게 하거나 남편의 기분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아마 다음의 꾸란의 말씀보다 핵심을 더 잘 찌를 말은 없을 것이다. 이 꾸란의 말씀은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적한다.

‘우리의 주여! 우리에게 아내와 자식을 주사 우리 눈의 기쁨과 위안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의의 본이 되게 하소서.’ (꾸란, 2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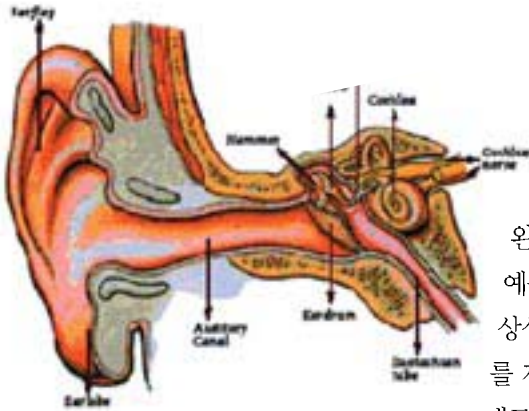
이것이 아내의 모든 의무가 의거하고 발원하는 기초다. 이러한 기초적 의무를 이행하려면 아내는 충실하고 신뢰할 만하며 정직해야 한다. 특히 남편이 적출(嫡出)을 갖



지 못하게 할 양으로 임신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남편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아내는 전적으로 남편의 권리인 동침을 타인에게 허락해서도 안 된다. 이의 당연한 결과로서, 아내는 남편이 모르게, 남편의 승낙 없이 낯선 남자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이거나 접대해서는 안 된다. 또 낯선 남자가 주는 선물을 남편의 허락 없이 받아서도 안 된다. 이는 필시 질투·의심·혐담 등을 피하고 관련 당사자 모두의 결백을 지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남편의 재산은 아내의 신용이다. 남편의 재산이 일부라도 자기에게 달려 있거나 자금 등이 맡겨진 경우에는 슬기롭고 알뜰하게 자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남편의 허가 없이 그 재산을 빌려주거나 처분할 수 없다.

동침에 대하여 말하자면,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보면 마음이 끌리게 해야 하고, 매력적이고 민감해야 하며, 협조적으로 나와야 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을 거부할 수 없다. 꾸란이 부부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건강과 체면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아내는 자기와 동침하고 싶은 생각이 가지게 하거나 만족을 빼앗을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행위를 하거나 자신을 소홀히 할 경우, 남편은 아내의 자유에 간섭하여 사태를 바로잡을 권리를 가진다. 양 당사자에게 최대한의 자기 달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남편 역시 아내의 만족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어떠한 잡음도 없이 들리는 우리의 귀



알라께서는 우리의 눈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의 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예를 들어 스테레오를 상상해보라. 스테레오를 제 아무리 최상의 상태로 듣다 할지라도, 어떤 우지직 그리고 쉬쉬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디오 채널이 흔히 섞여 들어온다. 지금 당장,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여 보라! 그 어떤 쉬쉬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당신의 귀는 그런 소리를 전혀 만들어내지 않는다. 당신을 경탄할 만큼 분명한 소리들을 듣는다. 우리의 귀들 또한 스테레오들처럼 우지직 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아라. 알라께서는 우리의 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주위에서 그 어떤 일그러지는 소리도 없이 들을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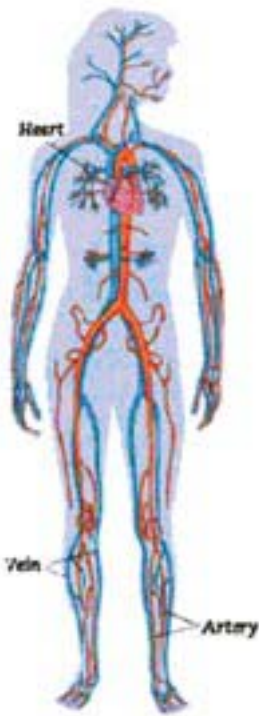
알라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방해할 어떤 소리들을 들을 수 없게끔 우리의 귀를 창조하셨다. 예를 들면, 피가 우리의 몸 속에서 상당히 빨리 흐르는데 그러한 피의 순환 도중에 많은 시끄러운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우리의 귀에는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도 그것이 도는 동안 굉장히 강력한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알라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이상적으로 우리의 귀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 모두가 우리를 돌보시는 알라의 배려 덕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알라께서는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방해할 소리들을 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다. 알라께서는 꾸란의 한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알라께서 너희를 너희 어머니들의 자궁에서 내어놓으시되 너희가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너희에게 시각, 청각 그리고 심장을 주시어 너희가 감사하도록 하셨다.”(16장 78절)



지칠 줄 모르는 우리의 심장



우리에게, 심장은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다. 심장은 분당 약 72회 뛰고 1년에 약 4천만번 뛴다. 이것이 얼마나 지치는 활동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손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그 다음 펼쳐보아라, 그리고 계속하여 그 동작을 하여 보아라. 당신은 몇 분 동안이나 그 동작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주먹만한 크기의 당신의 심장이 당신의 평생 동안 지치지 않고 단 한 번도 멈춤이 없이 이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아는가? 우리가 자는 도안에도 우리의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흥분하면 우리의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 더 천천히 뛴다. 우리의 심장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이 모든 조절을 자동적으로 행한다.

우리의 심장이 펄 때마다, 심장은 우리의 몸에 피를 펌프질하여 공급한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피 속에 있다. 우리의 몸의 각 세포는 필요한 산소와 음식을 피로부터 받는다.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약 43,000리터(약 11,000갤런)의 피를 펌프질한다. 당신은 이것이 얼마나 많은 피를 의미하는지 아는가? 이것은 약 150개의 욕조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이다. 당신이 단 하나의 컵으로 단 하나의 텀빈 욕조를 물로 채우려고 한다

면 지치지 않겠는가? 자 이제 단 하나의 컵으로 150개의 욕조를 물로 가득 채워야한다고 상상해보라.

아마 당신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수행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은 그러한 일을 해내고 있고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줄곧 그렇게 해왔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그 일을 해낼 것이다. 게다가, 심장은 한번도 쉬지 않는다.

당신은 아마 어려운 힘든 일을 하는 동안 한 번은 설 것이다. 아마 당신은 드러눕거나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은 지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장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심장은 작지만 그 임무는 거대하다. 이것이 알라께서 결코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심장을 창조한 이유이다.



이번 달의 질문

질문: 이슬람은 칼로 전파되었나?

대답: 비무슬림들이 이슬람을 생각할 때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꾸란을 들고 낙타를 타고 있는 광신자를 마음속에 그린다. 십자군 전쟁 기간 동안 유럽에서 인기를 얻게 된 이 황당한 모습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꾸란에서 분명히 “종교에는 어떠한 강요도 깃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에서는 사람의 신앙이란 순수하고 진지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므로, 신앙은 누구에게 강요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이슬람이 ‘칼로 전파되었다’는 황당한 이야기의 정체를 폭로함에 있어서, 비무슬림 역사가인 De Lacy O’Leary는 ‘그러나 역사는 전세계를 휩쓸고 다니며 칼끝으로 이슬람을 강요하는 광신적 무슬림들에 관한 전설은 역사가들이 이제껏 받아들인 중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황당한 이야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Islam at the Crossroads, London, 1923, p.8). 또한 무슬림들이 스페인을 약 800년 동안 지배했음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이 기간 동안 그 곳의 비무슬림들은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융성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수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중동의 무슬림 국가들에서 수세기동안 생존하여 왔다. 이집트, 모로코,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 같은 나라들에는 모두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있다. 만일 이슬람이 모든 사람들이 무슬림이 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여만 한다고 가르쳤다면, 이슬람 제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번창하던 때에 어떻게 그 모든 비무슬림들이 생존할 수 있었겠는가? 뿐만 아니라, 맨 처음 서양의 스페인과 모로코에서 동양의 인도와 중국에 이슬람을

전파한 사람들의 수효가 너무 적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한 종교의 구성원들이 되도록 강요하기에는 무슬림들이 너무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에 의해 설립된 위대한 제국과 문명은 위대한 지구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국민들은 그 제국과 문명의 일부임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슬람의 전파는 기독교 추종자들의 행동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바, 그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대 이래로 흔히 그들의 행동의 기초를 성경의 귀절들에 두면서 마음껏 칼을 휘둘렀던 것이다. 이 사실은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의 식민지화에 분명히 나타났으니, 그곳의 원주민들은 개종을 강요당하거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전멸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몽골인들이 많은 이슬람 제국들을 침략하여 정복하였을 때에 그들이 이슬람을 파괴하기는커녕 이슬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주목해보는 것 또한 흥미로운 일이다. 이것은 역사상 특이한 사건이었으니, 정복자들이 피정복자들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들은 승리자들이었기에, 분명히 무슬림이 되도록 강요될 수 없었던 것이다. 세상에 살고 있는 10억이 넘는 그 어떤 무슬림들에게 그들이 강요받았는가를 물어보아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는 인도네시아인데, 그곳에서는 어떠한 전쟁도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칼이 어디에 있었던 말인가? 이슬람처럼 정신적 보상을 주는 종교를 고수하도록 도대체 그 누가 강요될 수 있던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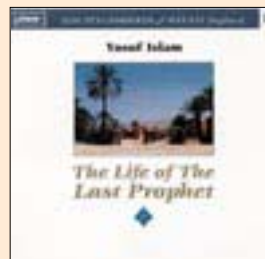
Question of Month

Question: Islam was spread by the sword?

Answer: Many non-Muslims, when they think about Islam, picture religious fanatics on camels with a sword in one hand and a Qur'an in the other. This myth, which was made popular in Europe during the Crusades, is totally baseless. First of all, the Holy Qur'an clearly says "Let there be no compulsion in religion". In addition to this, Islam teaches that a person's faith must be pure and sincere, so it is certainly not something that can be forced on someone. In debunking the myth that Islam was "spread by the sword", the (non-Muslim) historian De Lacy O'Leary wrote: "History makes it clear, however, that the legend of fanatical Muslims sweeping through the world and forcing Islam at the point of the sword upon conquered races is one of the most fantastically absurd myths that historians have ever accepted." (Islam at the Crossroads, London, 1923, p. 8.). It should also be known that Muslims ruled Spain for roughly 800 years. During this time, and up to when they were finally forced out, the non-Muslims there were alive and flourishing. Additionally, Christian and Jewish minorities have survived in the Muslim lands of the Middle East for centuries. Countries such as Egypt, Morocco, Palestine, Lebanon, Syria and Jordan all have Christian and/or Jewish populations. If Islam taught that all people are supposed to be killed or forced to become Muslims, how did all of these non-Muslims survive for so long in the middle of the Islamic Empire? Additionally, if one considers the small number of Muslims who initially spread Islam from Spain and Morocco in the West to India and China in the East, one would realize that they were far too few to force people to be members of a religion against their will. Additionally, the great empire and civilization established by the Muslims had great staying power -- its citizens were proud to be part of it. The spread of Islam stands in contrast to the actions of

the followers of Christianity, who since the time of the Emperor Constantine have made liberal use of the sword - often basing their conduct on Biblical verses. This was especially true of the colonization of South America and Africa, where native peoples were systematically wiped-out or forced to convert. It is also interesting to note that when the Mongols invaded and conquered large portions of the Islamic Empire, instead of destroying the religion, they adopted it. This is a unique occurrence in history - the conquerors adopting the religion of the conquered! Since they were the victors, they certainly could not have been forced to become Muslims! Ask any of the over one billion Muslims alive in the world today whether they were forced! The largest Muslim country in the world today is Indonesia-- and there were never any battles fought there! So where was the sword? How could someone be forced to adhere to a spiritually rewarding and demanding religion like Islam?

CD 제작!



우리 국제무슬림학생연합회에서
는 유스프 이슬람(Yusuf
Islam)이 녹음한 '마지막 사도
님의 일생'을 한국어판 CD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의 재
정상태가 빈약하여 아쩔 수 없이
여러분의 정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적은 돈이나마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은행, 계좌번호 214-047841-12-00

예금주: 일판 자밀

E-mail: muslimkorea@hanmail.net

이슬람교의 선지자들

1. 아담 ADAM

최초의 인간이자 최초의 선지자

3. 노아 NOAH

5. 살레 SALEH

2. 이드리스 Idris

4. 후드 HUD

6. 아브라함 ABRAHAM

선지자들의 조상

8. 이스마엘 ISMAEL

무함마드의 조상

9. 이삭 ISSAC

예수의 조상

10. 야곱 YACOB (YAKUB)

14. 슈아이브 SHU AIB

11. 요셉 JOSEPH (YUSUF)

12. 욥 JOB (AYYUB)

16. 모세 MOSES

유대교의 선지자 (받은 계시: 구약)

13. 즐키플 ZULKIFL

15. 요나 JONAH (YUNUS)

18. 엘리야 ELIJAH (ILYAS)

17. 아론 AARON

19. 엘리사 ELISHA (ELYASA)

20. 다윗 DAVID

(받은 계시: 시편)

21. 솔로몬 SOLOMON (SULEIMAN)

22. 자카리야 ZACHARIAH

23. 요한 JOHN (YAHYA)

24. 예수 (JESUS)

기독교의 선지자 (받은 계시: 신약)

25. 무함마드 (MUHAMMAD)

최후의 선지자 (받은 계시: 꾸란)

하나님이 인류에게 올바른 길을 알리기 위해 선택한 이들을 선지자라고 부른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꾸란에서 이름이 언급된 선지자는 위의 25명이다.

이들 중 노아,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유대교의 선지자 모세, 기독교의 선지자 예수,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 5명을 특히 중요한 선지자로 꼽는다.

하나님(Allah)의 마지막 메시지인 꾸란에는 25명의 선지자들(messenger)에 대한 이야기와 설교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캐나다의 무슬림들

(Yasin Syed 씀)

캐나다는 다양한 문화와 신앙을 지닌 캐나다인들로 구성된 다양한 국가이다. 비록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은 기독교인 이지만, 캐나다에서의 무슬림 사회는 증가일로에 있고 오늘날 가장 큰 종교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캐나다의 무슬림 인구는 전체 약 3,000만명 중에서 약 60만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캐나다의 무슬림들은 세계의 많은 지역들로부터 왔고 다양한 언어를 말하고 있다. 그들은 남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카리브해에서 왔고 영어, 아랍어, 우르드어, 화르시어, 스와힐리어, 터키어 그리고 많은 다른 언어들을 말한다. 무슬림들의 80%가 주요한 캐나다의 대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고 토론토 지역은 25만명 이상의 무슬림들의 고향이다.



이슬람은 캐나다에서 새로운 종교가 아니다. 이 나라의 이슬람 역사는 19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캐나다에서의 최초의 무슬림 아이는 1854년 온타리오 주에 있는 스코틀랜드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 가정은 나중

에 7명의 아이를 더 낳게 되었다. 1871년에는 미국으로부터 이주하여 온타리오주에 정착한 유럽인 무슬림 가정에 대한 기록들도 있었다. 개척자 시절 동안, 많은 무슬림들이 프레리지역(대초원 지역)을 온타리오주와 퀘벡주까지 연결시키는 철도 공사의 일을 하러 왔다. 다른 무슬림들은 20세기 초엽에 앨버타주와 서스캐치원주의 이주지에서 왔다. 1938년 12월 12일에 캐나다, 아니 사실은 북 아메리카 전체에서 최초의 모스크가 설립되었다. 앨버타주의 에드몬턴시에 있는 그 알 라시드(Al-Rashid) 모스크는 Mawlana Abdul Aleem Siddiqui al-Qadiri 이슬람 학자와 성꾸란의 유명한 영어 번역자인 Abdullah Yusuf Ali가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행하여졌다. 그 알 라시드 모스크는 캐나다에서 아직도 무슬림 사회를 위한 지표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슬림들이 경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캐나다에 도착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온 숙련된 노동자들과 전문 직업인들이었다. 1952년에 맥길 대학교에서 이슬람학 연구가 시작되어 외국에서 온 많은 무슬림 학자들과 학생들의 매력을 끌었다. 1960년대 중엽에는, 많은 무슬림 교사들, 전문 직업인들, 그리고 기업가들이 캐나다에 와서 경제적 성장을 증진시켰다.

오늘날, 캐나다의 무슬림들은 기반이 단단한 공동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캐나다 사회의 적극적 구성원들이다. 노동력에 있어서 27%를 차지하는 무슬림들은 전체 인구의 17%에 비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 모스크와 할랄 고기(이슬람법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잡은 고기)를 파는 상점들이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에 흔히 있다. 무슬림들은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토론토 이슬람 제단(Islamic Foundation of Toronto)

가르치기 위한 학교들을 설립하였다. 라마단의 행사인 Eid ul Fitr와 허용된 짐승을 도살하여 신의 제단에 바치는 행사인 Eid ul adha가 캐나다의 방송 및 신문에서 정기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각 학교, 기업체 그리고 일터에서 이슬람 관습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있고 무슬림들의 공휴일을 인정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또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슬람의 아름다운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고 비 무슬림들에게 이슬람을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캐나다의 많은 저명한 정치가들은 또한 무슬림들의 행사에 참가하고 있고 무슬림 사회로부터 지원을 구하고 있다.

토론토에는, 50군데가 넘는 모스크와 이슬람 센터가 있어 금요일 합동 예배 때 만원을 이루고 있다. 이 대부분의 모스크들은 현존하는 건물을 개조한 것이지만 기초부터 새로이 지어진 모스크들도 있다.

무슬림 공동사회는 캐나다에 있는 다른 신앙을 믿는 사람들과 또한 적극적인 관계를 개발해놓기도 하였다. 무슬림들은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시작하고 있고 그들의 사회와 일터에서 인식을 증가시키고 있다. 무슬림들은 또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의 신앙간의 대화에 참여하기도 하고 있다. 무슬림 공동사회는 모든 종교의 숭배의 장소들을 존경하고 있다.

그러나 무슬림 공동사회가 이루어낸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문제점들이 도전하여 오고 있다. 무슬림들은 무슬림 공동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싸우어야만 한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그리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과 같은 용어들이 언론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턱수염을 기른 무슬림들이 '테러리스트들'이라고 불리우고 히잡(머리에 덮는 스카프)을 쓴 무슬림 여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들이 계속 있어왔다. 무슬림들은 캐나다 국민들에게

우리의 종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야만 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이슬람을 이해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무함마드 사도(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의 숭고한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도와야만 한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무슬림들은 이 나라에서 강력한 공동사회를 구축했으며 이 단계에 이르기 위하여 많은 시련을 겪어온 것이다. 앞으로의 세월들이 무슬림들에게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무슬림 공동사회는 많은 인구를 가지게 될 것이며 캐나다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줄 것이다. 또 다시, 우리는 강력한 공동사회로 출현할 것이며, 우리는 이슬람의 가르침과 우리의 성스러운 무함마드 사도(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의 순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음으로써만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신앙을 지키는 더 많은 무슬림들

-이슬람은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교이며 금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유대교를 훨씬 능가하게 되고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단체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1년도의 조사에서조차 앨버타 및 캐나다의 25개 대도시 중 10개의 대도시에서 유대교인들보다 무슬림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슬림 아주지들과 출생율을 분석하여 온 오토와시의 경제학자인 Daood Hassan Hamdani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무슬림수는 그 때 이후로 293,000명에서 650,000명에 이르기까지 두 배를 넘게 되었다. 토론토에 사만도 16개가 넘는 무슬림 학교들이 있다.

-무슬림들은 대부분의 캐나다인들 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상태이다. 모든 캐나다인들 중 학사학위 소유자가 17%인 반면에 무슬림들의 경우는 27% 학사학위 소유자가 있다. 무슬림 학사학위 소지자들은 정부, 산업, 그리고 첨단 기술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앨버타에서 개척적인 농부들로서 커다란 기여를 하여오고 있다.

-와싱턴 5월 15일 이슬람 온라인 네트, 뉴스 통신사-캐나다의 한 주요 신문이 5월 14일에 보도한 것처럼 무슬림들의 수가 캐나다에서 급성장하였다. 또한 인구조사에 의하면 이슬람이 캐나다에서 첫 번째로는 비기독교신앙이 되었다. 몬트리올 신문은 5월 13일 화요일에 캐나다의 공식적 통계자료에 의해서 발표된 2001년 캐나다 인구조사를 인용하면서 퀘벡의 무슬림들의 수호가 1991년과 2001년 사이에 거의 1.5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 인구조사는 그러한 증가의 원인을 남아시아, 북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으로부터의 무슬림들의 이주의 탓으로 돌렸고 또 그로 인해 그 나라에서 이슬람을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제 이슬람은 사구의 한 종교가 될 것이며 우리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전 세계를 더 가까이 결속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을 희망한다'라고 몬트리올 신문은 몬트리올 무슬림 평의회 의장인 Salaam Elmenyawi와 Concordia 대학교의 예배당 목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했다.

캐나다의 무슬림 공동사회 평의회 의장인 Bashir Hussain은 1960년대 초기 몬트리올에 극소수의 무슬림들만이 있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약 30개의 모스크와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고 그는 강조했다.

캐나다 학술 연구회의 이사인 Jack Jedwab 또한 캐나다의 무슬림 공동사회에 있어서 날로 늘어난 수호의 무슬림 학생들을 강조했다. 2011년도 인구 조사의 자료가 수집될 때까지는 몬트리올에 개신교 학생들 보다 무슬림 학생들이 더 많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일간 신문에 말했다.

Islam in Canada

By : Yasin Syed

Canada is a diverse nation with Canadians coming from a variety of cultures and faiths. Although the majority of Canadians are Christian, the Muslim community in Canada is growing and currently is the largest religious minority in the country. The Canadian Muslim community is estimated at around 600,000, in a total population of about 30 million. Muslims in Canada come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speak a variety of languages. They come from South Asia, the Middle East, Europe, Africa and the Caribbean, and speak English, Arabic, Urdu, Farsi, Swahili, Turkish and many other languages. Eighty-six percent of Muslims live in the major Canadian metropolitan areas and the Greater Toronto region is home to more than 250,000 Muslims.

Islam is not a new religion to Canada, Muslims have a history in this country that dates back to the mid of 19th century. In 1854, the first Muslim child was born in Canada to a Scottish family in Ontario. The family later had seven other children. There were also records of a European-Muslim family that migrated from the United States and settled in Ontario in 1871. During the pioneering days, many Muslims came to work on the construction of the railway track linking Prairies to Ontario and Quebec. Others arrived during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o work in the settlements of Alberta and Saskatchewan.

On December 12, 1938, the first mosque in Canada, and indeed in the whole of North America was opened. The Al-Rashid mosque in the city of Edmonton in the Province of Alberta was inaugurated in the presence of Mawlana Abdul Aleem Siddiqui al-Qadiri Rahmatullahi 'alayh and Abdullah Yusuf Ali, Rahmatullahi alayh, the well-known English translator of the Holy Qur'an. The Al-Rashid mosque still continues to be a landmark for the Muslim community in Canada.



After World War II, Muslims arrived in Canada to improve the economy. They were skilled workers and professionals who were brought to serve the needs of the people of that country. In 1952, the inauguration of Islamic Studies took place at McGill University and attracted many Muslim scholars and students from abroad. During the mid-1960's, many Muslim teachers, professionals and entrepreneurs came to Canada and increased the economic growth.

Today, Muslims in Canada are a well-established community. They are active members of the Canadian society. Twenty-seven percent of Muslims in the labour force have one or more university degrees compared to 17% of the general population. Mosques and halal meat shops are common in major Canadian cities. Muslims have also established madrasas to educate their children. The events of Ramadan, Eid ul-Fitr and Eid ul-Adha are covered in the Canadian media and

newspapers regularly. Schools, businesses and workplaces are beginning to accommodate Islamic practices and are recognizing Muslim holidays. Muslims have also opened websites which present the beauty of the teachings of Islam and have also used them for propagating Islam to non-Muslims. Many prominent figures in Canadian politics also continue to attend Muslim events and seek support from the Muslim community.

In Toronto, there are more than 50 mosques and Islamic centers that are full during Jumu'ah prayers. Most of these masajid have at least two Hafiz Qur'an who lead the taraweh prayers during Ramadan. Some of these mosques have been built new from the foundation while most of them have been converted from existing buildings. Special arrangements are made during Eid ul-Fitr and Eid ul-Adha prayers in order to accommodate a larger congregation. Muslims also preserve their Islamic traditions and recite Khatm ul-

More Muslims Keeping the Faith

- Islam is Canada's fastest-growing religion, and in this year's census, it is expected to surge well past Judaism and be recognized as Canada's second-largest religious group. Even on the 1991 census, there were more Muslims than Jews in Alberta and 10 of Canada's 25 metropolitan cities.

- According to Daood Hassan Hamdani, an Ottawa economist who has analysed Muslim immigration and birth rates, the number of Muslims in Canada has more than doubled since then, from 293,000 to about 650,000. Toronto alone has more than 16 Muslim schools.

- Muslims are better-educated than most Canadians; 27 per cent have graduate degrees, as compared to only 17 per cent of all Canadians. They have made major contributions as pioneering farmers in Alberta, as well as in government, industry and high-tech enterprises.

- **WASHINGTON, May 15 (IslamOnline.net & News Agencies)** – The number of Muslims has thrived in Canada as a census shows that Islam has become the number one non-Christian faith in Quebec and Canada as a whole, a leading Canadian newspaper reported Wednesday, May 14 2002. The number of Quebec Muslims increased by almost 1.5 times between 1991 and 2001, The Montreal Gazette said, quoting the 2001 Canadian census made public by the official Statistics Canada on Tuesday,

May 13.

The census attributed the obvious increase to Muslims immigration from south Asia, North Africa and the Middle East, making Islam the fastest growing religion in the country.

It also showed that the 108,620 Muslims in Quebec were up by 141.8 per cent from a decade earlier.

- "Now Islam is going to be a Western religion and we look forward to making a positive contribution. We hope that this will help to bring the world closer together," the Gazette quoted as saying Salaam Elmenyawi, chairperson of the Muslim Council of Montreal and a chaplain at Concordia University.

Bashir Hussain, chairperson of the Montreal Chapter of the Council of Muslim Communities in Canada, remembers when there were only a handful of Muslims in Montreal in the early 1960s.

"Now we have about 30 mosques and places of prayer, and it's still not enough," he stressed.

Jack Jedwab, executive director of the Association for Canadian Studies, also highlighted an increasing number of Muslim students among the Muslim community in Canada.

"By the time the data are collected in the 2011 census, if they are collected, there may be more Muslim than Protestant students in Montreal schools," he told the daily.

Qur'an and celebrate Milaad un-Nabi and Mi'raj un Nabi at homes and in mosques. They also visit farms and perform zabiha on Eid ul-Adha and distribute the meat among their families, relatives and the poor.

The Muslim community has also develop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members of other faiths in Canada. Muslims are starting to promote understanding about their faith and are increasing awareness in their communities and workplaces. Muslims are also participating in inter-faith dialogues among Christians. The Muslim community respects all places of worship of all religions.



Some prominent Muslim individuals are also becoming more visible in the Canadian society, serving as editors of newspapers, as economists and researchers in industry, and as professors and Deans of Faculties in universities.

But despite the progress made by the Muslim community, it is still facing many challenges. Muslims have to fight the negative stereotypes that are

surrounding the community. Terms like "Islamic extremists" and "Muslim terrorists" are constantly being repeated in the media. There have been incidents where Muslims with beards were being called terrorists and Muslim women with hijabs were being harassed. Muslims scholars need to educate the Canadian public more about Islamic teaching and also should help them understand Islam and the noble teachings of our beloved Prophet Muhammad (Peace Be Upon Him)

Overall, Muslims have established themselves as a strong community in this country and we have gone through a lot of hard work to arrive at this stage. The years ahead will be very critical for Muslims. The community will have a large population and will have a great impact on the Canadian society. Once again, we will have to emerge as a strong community and we will only accomplish this goal by never abandoning the teachings of Islam and the sunnah of our Holy Prophet Muhammad(PBUH).

New Pak Korea International

Leading exporter
M. Shariq Saeed

PH no.: 82-2-2631-8557
Fax: 82-2-2631-8281

http://www.shariq.co.kr
e-mail: shariq@shariq.co.kr

먹거리

Khadija(정희숙)

우리는 음식을 먹고자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갈하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자 원한다. 난 시골의 목가적인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자연은 하나의 나의 세계를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정다운 친구였다.

농가의 어디서나 흔하듯이 우리집도 예외없이 소, 돼지, 개, 닭, 오리를 길렀기에, 어렸을 때는 석양이 질 때면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 저수지에서 오리를 몰아 오곤 하였다. 기억으로는 여섯 살쯤이었는데 어느날 강아지가 갑자기 몸을 비틀며 쉼없이기도 하고, 나뒹굴며 이상증세를 보였다. 엄마는 둥근 대바구니에 강아지를 담아 새끼줄로 얼기설기 위를 막아 강아지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하여, 읍내 수의과를 찾았는데 쥐약을 먹어 미쳤다며 마취주사로 숨을 거두게 했단다. 오빠랑 나는 친구같던 강아지를 다시 못 보게 되어 너무 안타까워 서로 말도 잊지 못했다. 그 후 오리도 누군가 데리고 가 버렸고 닭들은 가끔 솔개가 나뒹갔다.

동네사람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돼지를 잡았는데, 큰 구경이라도 난듯이 애 어린 할것없이 모였지만 우린 끼지도 못 할 뿐만 아니라 고기구경도 할 수 없었다. 항상 엄마의 지론은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란다. "어디 누구도 그거 먹고 꺾란이 나서 죽었다더라."라는 한마디가 끝이었다. 생선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거의 장날마다 사 오는 소금절이 갈치나 멸치, 아니면 북어나 절인 고등어만 차례가 왔다.

가끔은 아버지의 퇴근길 자전거 짐반이에 쇠고기가 실려 있었다. 일꾼을 여러명 불러 며칠씩 일을 할때는 쇠뼈를 사다가 푹 고아서 만든 우거지 된장국이 참 맛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짐승을 키우다 죽으면 아깝다하여 음식을 만들었고 겨울날에는 독약을 묻힌 콩을 뿌려서 핑을 잡기도 하고, 뒷이나 올라미를 만들어 지나가는 짐승을 잡아 먹기도 하였다. 몸에 좋다하여 뱀을 잡아 술에 담그기도

하고 끓여 먹기도 하였다.

세월이 흘러 이슬람을 알게되고, 무의식적인 돼지고기에 대한 편견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 돼지의 혈관속에는 선모충균이 서식하는데 이 균은 끓이거나 절이거나 말리거나 삶는다해서 죽지 않는다. 돼지의 습성자체가 게으르고, 햇빛을 싫어하며, 무엇이든 닥치는대로 먹기 때문에 다른 육류보다 병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깨끗한 고기를 먹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죽은 동물의 피나 자연사한 동물, 싸우다 죽은 동물, 병든 동물, 타살로 고통스럽게 죽은 동물이나, 호랑이, 개 뱀, 고양이, 쥐 따위의 음식을 금한다. 그 까닭은 음식물이 창자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동안 뇌를 포함한 신체의 각 조직에 흡수되어 신진대사가 되는데 인간의 성격이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짐승은 두들겨 팼수록 맛있다고 하여 그런식으로 도살하지만, 동물이 매맞는 동안 증오심을 일으키고 그것이 독이 되어 온 몸에 퍼지고 독이 될게 없다는 것이다. 갇혀진 고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질기고 맛이 없으며 자연환경에서 방목된 것보다 빨리 죽는다고 한다.

이슬람의 도살법은 독특하다. 단칼에 동맥을 끊어 고통을 최대한 줄이며, 피를 뺀다. 모든 병균은 혈관을 통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피가 남아 있으면 부패도 빠르게 진행된다. 이슬람에서는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에도 뚜껑없이 보관된 것은 보이지 않는 동안 해충이 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권한다.

이슬람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어려서부터 품어왔던 궁금증은 이렇게 풀리며 자연스럽게 나의 종교로 다가왔다.

2003년도 봄을 강타한 사스는 왜 발생했는가?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생명은 소중하다.

우두(세정)하는 법

청결(따하라)은 예배하기 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한 인간의 마음과 외모는 가장 청결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꾸란 5장7절은 강조하고 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예배드리려 일어났을 때 너희 얼굴과 두 손을 팔꿈치까지 씻을 것이며 머리를 쓰다듬고 두 다리를 발목까지 닦을 것이니 너희가 또한 불결하였다면 깨끗이 하라...”

우두는 청결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다. 우두 없이는 예배는 무효이다. 신체의 노출된 부분을 물로 닦는 것으로 오른손부터 시작하여 왼손, 입안, 코속, 얼굴, 오른팔, 왼팔, 머리, 귀, 목, 오른발, 왼발 순으로 3회 닦는다.

알라께서 꾸란에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알라께서는 그분께 의지하고 청결을 지키는 이들을 사랑하시니라.”(2장 222 절)



1. 먼저 예배를 위한 우두를 하겠다는 의도(니야)를 밝히고 “비쓰밀라”(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한다. 물이 손가락들 사이로 반드시 흘러들게끔 하면서 양손을 손목까지 3회 씻는다.



2. 3회 입안을 물모금한다.



3,4. 콧속을 3회 씻어내고 코끝을 씻는다.



5.6.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로 그리고 이마에서 목구멍까지 얼굴을 3회 씻는다.

7.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먼저 오른 팔을 다음에 왼쪽 팔을 3회 깨끗이 씻어낸다.

8. 이마 꼭대기로부터 머리 뒤까지 머리 위로 젖은 손바닥들을 이동시킨다.

9. 물로 젖은 검지들의 끝을 양쪽 귓구멍 안에 집어넣어 씻고 또 물로 젖은 엄지들로 양쪽 귀의 뒤를 씻는다.

10. 마지막으로, 물이 모든 발가락 사이로 그리고 모든 발의 부분에 흐르도록 하면서 양쪽 발을 오른발부터 왼발까지 발목까지 씻는다.

우두가 끝난 뒤 다음을 암송한다:

앗쉬하두 알라~일라~하 일랄라, 와 앗쉬하드 안나 무함마다르라쑈~를라.(나는 알라외에는 신이 없음을 증언하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임을 증명하나이다.)

이슬람에서는 왜 술을 금하는가?

지은: Dr. Zakir Naik 옮김: Amina Zahid(곽은미)

술은 태고 적부터 인간사회에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고 끔찍한 불행을 야기합니다. 술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에 걸친 범죄율의 급등과 정신병의 증가, 수백만의 파난 난 가정들에 관한 통계는 이 모든 재난이 술의 파괴적인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암묵적인 증언을 보여줍니다.

1. 꾸란이 명하는 술의 금지

성 꾸란은 다음의 구절에서 음주를 금지합니다: 믿는 자들이여 술과 도박과 우상 숭배와 점술은 사탄이 행하는 불결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을 피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변성하리라.[꾸란 5:90]

2. 성경이 명하는 술의 금지

성경은 다음의 구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a. 포도주를 마시면 바보처럼 되고, 많이 마시게 되면 미친 듯이 사납게 되므로 누구든지 술에 현혹된 자는 현자가 아니니라. [잠언, 21:1]

b.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18]

3. 술은 제어기능을 상실하게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두뇌 안에 제어기능 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행동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정상적일 때에는 자신의 부모나 윗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두뇌 안의 제어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공공의 장소에서 불일을 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이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종종 저지르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의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옷에다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4. 간통, 간강, 근친 상간을 저지르고 에이즈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수의 알콜 중독자들은 간통, 간강, 근친 상간을 저지르고 에이즈에 걸리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1900건의 강간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대다수의 강간자들은 술에 취해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학대, 간통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적으로 미국 국민의 8%는 근친 상간을 범하고 있는데 12명에서 13명중 한 명은 근친 상간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근친 상간 사건의 거의 모든 경우 관련된 당사자중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병으로 알려진 에이즈가 확산되는데 관련된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알콜 중독입니다.

5. 모든 알콜 중독자들은 처음에는 사교의 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교의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딱 한 잔이나 두 잔 정도로 술을 절제하므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어 절대 술에 만취하는 상태로까지 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모든 알콜 중독자들은 처음에는 사교의 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콜 중독자들이나 술 주정꾼들 중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알콜 중독자나 술 주정꾼이 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사교의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 수 년 동안 술을 마셔오면서 자기는 단 한 번도 술에 취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 단 한 번이라도 술에 취해 어떤 수치스러운 죄를 저질렀다면 평생동안 그 수치를 지니게 됩니다.

사교의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단 한 번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술에 취해 있을 동안 강간이나 근친 상간의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죄에 대해 후회할 수는 있을 지라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 죄의식을 평생동안 지니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나 희생자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됩니다.

7. 하디쓰는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a. 많은 양으로 취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적은 양으로 취하게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한 잔만 혹은 한 모금만 마신다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b. 술은 모든 악의 근원이며 가장 수치스러운 해악입니다.

c. 술을 마시는 사람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술에 관한 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은 알라(하나님)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의 교우인 아나스는 선지자(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알라께서는 술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술을 제조하는 사람, 제조된 술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술을 운송하는 사람, 술을 가져오는 사람, 술을 따르는 사람, 술을 파는 사람, 술로 돈을 버는 사람, 술을 사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술을 사는 사람 모두입니다.



8. 알콜 중독과 관련된 질병들

술의 금기를 요구하는 몇 가지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술의 부작용 중 대부분이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상세하게 술의 부작용에 대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래는 술과 관련된 질병의 간략한 목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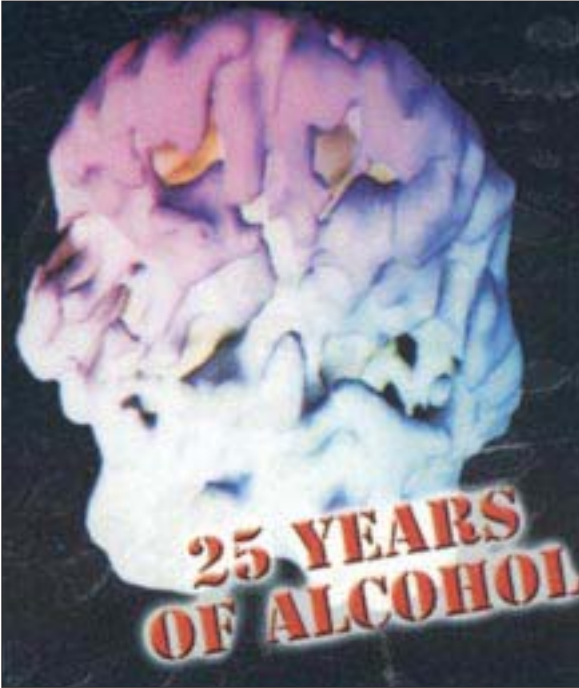
- 1. 술과 관련된 가장 잘 알려진 질병은 간 경화증입니다.
- 2. 식도암, 편도암, 간암, 대장암 등이 있습니다.
- 3. 식도염, 위염, 췌장염, 간염도 음주와 관련 있습니다.
- 4. 심근증, 고혈압, 관상 동맥 혈전 발작, 후두염과 심장마비도 과음과 관련됩니다.
- 5. 발작, 졸중, 경련, 다른 종류의 마비도 음주와 관련됩니다.
- 6. 말초 신경 장애, 외피 퇴화, 소뇌 쇠약증 등도 음주로 인해 야기되는 잘 알려진 증후군입니다.
- 7. 최근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 상실증을 동반하는 워닉 코르사코프씨병(기억력이 장애를 받거나 추억을 창조하는 등의 정신병)과 다른 종류의 마비가 함께 오면서 옛날 기억을 오랫동안 되새기며 얘기하는 증상도 과도한 음주 때문에 야기된 티아민의 결핍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 8. 각기병과 다른 결핍증들도 알콜 중독자들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니코틴산 결핍 증후군 또한 알콜 중독자들에게 나타납니다.
- 9. 정신 착란증은 알콜 중독증에 시달리는 동안은 물론 치료받은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또한 정신 착란증은 금주 기간에는 금주에 따른 허탈에서 오는 증상중의 하나로써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착란증은 의료시설이 좋은 병원에서 잘 치료받는다

해도 죽음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상당히 심각한 병입니다.

- 10. 내분비물의 수많은 불균형이 알콜 중독과 관련된 병입니다. 다발성 종액 종증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안색이 불그레해지는 쿠싱병 증후군(ACTH 호르몬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신진 대사의 이상증; 고혈압 부신 피질 장애 당뇨병 비만증을 일으킴)에 이르기까지 알콜 중독에 관련된 병은 수 없이 많습니다.
- 11. 혈액에 관한 부작용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엽산 결핍으로 인한 대적혈구 빈혈증입니다. 제인(옥수수에서 추출한 단백질) 증후군은 알콜 중독자들을 따라 다니는 용혈 빈혈증과 황달, 지방 과혈증의 세 가지 질병을 야기하는 원인입니다.
- 12. 혈소판 장애와 혈소판 기형증도 알콜 중독자들 가운데 드문 병은 아닙니다.
- 13. 자주 사용되는 메트로니다졸(trichomoniasis의 치료제)은 알콜과 만나면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 14. 알콜 중독 재발은 만성 알콜 중독자들 가운데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병에 대한 저항과 면역 방어 체계는 음주에 의해 무너집니다.
- 15. 폐병은 알콜 중독자들에게 매우 무서운 병입니다. 폐렴과 폐 농양, 폐기종 결핵이 알콜 중독자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질병입니다.
- 16. 심각한 만취 상태에서 사람은 대개 구토를 하는데, 이는 기침으로 내뱉을 수 있는 보호 반사 작용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것은 폐에 쉽게 들어가 폐렴이나 폐 농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구토물이 폐로 들어가 질식사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 17. 여성들 사이에 나타나는 음주의 부작용은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술로 야기된 간장 경화증에 더 무력합니다. 임신기간 동안의 음주는 태아에 아주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태아 알콜 증후군은 의학계에서 상당히 인지된 병입니다.

- 18. 피부병도 과음과 관련됩니다.
- 19. 습진, 탈모증, 손톱 영양 실조, 손톱 영양 장애, 구내염(입안의 각진 곳에 염증)도 알콜 중독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병입니다.

9. 알콜 중독은 하나의 질병입니다.



의사들은 이제 알콜 중독이란 단순한 중독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질병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 연구 재단은 이에 관한 한 권의 소책자를 발행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이 하나의 질병이라면 그 질병은 병에 담겨져 팔리고,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에 광고되며, 널리 퍼뜨려 질 수 있게 면허가 있는 소매점도 소유하고, 정부에게 국고 세입을 가져다주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란의 죽음을 불러오며, 세균이나 바이러스 병원체도 없이 가족의 삶을 파괴하고 범죄를 증가시키는 유일한 질병입니다. 술이란 질병이 아니라 사탄의 작품입니다.

알라께서는 그 분의 무한한 지혜로 우리에게 사탄이 놓은 올가미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슬람은 단 올 피트라 혹은 인간의 자연스런 종교라 불립니다. 이슬람의 모든 훈령은 인간의 자연스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술은 인간과 사회를 자연스런 상태에서부터 이탈시킵니다. 술은 인간을 인간 자신이 스스로 더 우월하다 주장하는 짐승의 위치보다 더 낮은 위치로 타락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에서 음주를 금하는 이유입니다.



월간 소식(Monthly News)

★서울중앙성원

서울중앙성원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아랍어, 목요일 하디스, 금요일 이슬람 교리 및 배경, 토요일 꾸란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서울 중앙 성원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32-21
전화: (02) 794-7307, 793-6908

Seoul Central Masjid

Seoul Central Masjid established Quran, Hadis, Islamic and Arabic classes for everyone. This kind of lectures will be held every week regularly at Seoul Central Masjid.

Date: Every Wednesday, 16:00~17:30
Topic of Lecture: Arabic
Lecturer: Abdul Rahman Lee

Date: Every Thursday, 16:00~17:30
Topic of Lecture: Hadith

Date: Every Friday, 16:00~17:30
Topic of Lecture: Basic Islamic Studies
Lecturer: Miss. Hilba

Date: Every Wednesday, 16:00~17:30
Topic of Lecture: Quran
Lecturer: Ali

Address: Seoul Central Masjid
732-21, Hannam-dong, Yongsan-ku, Seoul,

★전주성원

전주성원에서는 매일 아스르예배 후에 이슬람교리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전주 성원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661-882)
전화: (063) 243-1483

Jeonju Masjid

Jeonju Masjid established Islamic lecture for everyone. This kind of lecture will be held every week regularly at Jeonju Masjid.

Date: Every after asr praying.
Topic of Lecture: Basic Islamic Studies
Lecturer: Abdul Wahab Za'id

Address: 1567-10, 2-ga Inhu-dong,
Duk-jin Gu, Chonju,

★피주성원

피주성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이사 예배후에는

꾸란의 해석, 일요일 오전 11시에는 꾸란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피주성원 주소:
경기도 파주시 원릉면 영태리 421-9(413-813)
전화: (031) 946-2110
Fax: (031) 946-2126
E-mail: pajumasjid@yahoo.com

Paju Masjid

Paju Masjid established Quran tafsir Quran lecture for everyone. This kind of lecture will be held every week regularly at Paju Masjid.

Date: Every Saturday after I
Topic of Lecture: Quran Tafsir
Date: Every Sunday (11:00 am)
Topic of Lecture: Teaching Quran

★부산성원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0-1(609-811)
전화: (051) 518-9991
(051) 518-9992
부산성원에서는 매월 아래와 같은 정기강좌 및 모임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 매주 토요일 오후 5:00-6:30
— 일반인 대상 아랍어및 이슬람교리 강좌
- * 매주 일요일 오전 10:30-12:00
— 외국무슬림 대상 한글교실 운영
- * 매주 일요일 오후 3:00-5:00
—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
- * 매주 월요일 오후 6:30-8:00
— 일반인 대상 터키어 및 이슬람교리 강좌
- * 매주 일요일 주흐르 예배후
— 재부 인도네시아 무슬림회 우스라이팅
— 재부 방글라데시 무슬림회 우스라이팅
- * 매월 마지막 토요일
— 무슬림가족 등산모임

*Date: Every Saturday, 17:00~18:30
Topic of Lecture: Arabic and Basic Islamic Studies

*Date: Every Sunday, 10:30-12:00
*Topic of Lecture: Teaching Korean language for foreign muslims

*Date: Every Sunday, 15:00-17:00
*Topic of Lecture: English teaching for children

*Date: Every Sunday after Zuhur Prayer
Meeting of Indonesian muslims
Meeting of Bangladesh muslims

*Every last Saturday of month family climbing
Address: Busan Masjid

30-1 Namsan-dong, Kemjeong-ku, Busan

★광주성원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역리 48-9(464807)
전화: (031) 761-3424
광주성원에서는 금요일 합동예배는 오후 1시에 시작됩니다.

Address: Kwangju Masjid
48-9 Yeolari Kongju-youb
Kwangju-gun Kyung-do
Jumma Khutba start at 13:00

★인양성원

경기도 안양시 인양5동 618-132(430-828)
전화: (031) 444-7757

Daily Program
— After Asr prayer Hadis lecture
— After Fitr Prayer Teaching Quran

Weekly Program
— Every Saturday night at 10:15~11:00 pm, speech about Islamic life
— Every Sunday after fizr prayer teaching how to prayer, udu, azaan etc.

Monthly Program

— Every month last saturday night,
— at 9:00~9:30 pm, question-answer meeting
— at 10:15~11:15 pm, teaching Quran
— at 11:15~11:35 pm, lecture about Islamic life
— Kamul Lail(Sahtul Tahazzut)
— Discussion about almighty Allah
— After Fitr prayer teaching Quran
— After Zohr prayer hadis studies
— After Asr prayer discussion about Islam

Address: Anyang Masjid
618-132, Anyang-5-dong,
Anyang, Kyunggi-do

★제주임시성원(Jeju Masjid)

제주시 노형동 939 정한오피스텔 1215호(600802)
전화: (064) 712 1215

★자미아 마사지드 우스만

이슬람 센터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02-6번지
전화: (053) 523-2171
JAMIA MASJID USMAN
ISLAMIC CENTER TAEGU
#202-6, Chuk Chan-dong, Dal Seo-gu, Daegu, Korea,
Tel: (053) 523-2171

Contents

이슬람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2
이슬람을 배웁시다 '어떠한 잡음도 없이 들리는 우리의 귀'	4
'지칠 줄 모르는 우리의 심장'	5
이번 달의 질문	6
Question of Month	7
이슬람의 선지자들	8
캐나다의 무슬림들	9
Islam in Canada	11
먹거리	14
우두(세정)하는 법	15
이슬람에서는 왜 술을 금하는가?	17
월간 소식(Monthly News)	21



2003년 7월 예배시간표 (Timetable for Prayers July 2003)

Date	Day	Fajr	Sunrise	Zohr	Asr	Magrib	Isha
July 1	Tu	3:21	5:14	12:36	16:29	19:58	21:44
2	W	3:21	5:14	12:36	16:29	19:58	21:43
3	Th	3:21	5:15	12:36	16:29	19:57	21:43
4	F	3:22	5:15	12:36	16:29	19:57	21:42
5	Sa	3:22	5:15	12:36	16:29	19:57	21:42
6	Su	3:24	5:16	12:37	16:30	19:58	21:42
7	M	3:25	5:17	12:37	16:30	19:57	21:42
8	Tu	3:25	5:17	12:37	16:30	19:57	21:41
9	W	3:26	5:18	12:37	16:30	19:56	21:40
10	Th	3:27	5:18	12:37	16:30	19:56	21:40
11	F	3:28	5:19	12:37	16:30	19:55	21:39
12	Sa	3:29	5:20	12:38	16:31	19:55	21:39
13	Su	3:30	5:21	12:38	16:31	19:55	21:38
14	M	3:31	5:21	12:38	16:30	19:55	21:38
15	Tu	3:32	5:22	12:38	16:30	19:54	21:37
16	W	3:33	5:22	12:38	16:30	19:54	21:36
17	Th	3:34	5:23	12:38	16:30	19:53	21:35
18	F	3:35	5:23	12:38	16:30	19:53	21:34
19	Sa	3:36	5:24	12:38	16:30	19:52	21:33
20	Su	3:37	5:25	12:38	16:30	19:51	21:32
21	M	3:38	5:25	12:38	16:30	19:51	21:31
22	Tu	3:39	5:26	12:38	16:30	19:50	21:30
23	W	3:40	5:27	12:38	16:30	19:49	21:29
24	Th	3:41	5:28	12:38	16:29	19:48	21:28
25	F	3:43	5:28	12:38	16:29	19:48	21:26
26	Sa	3:44	5:29	12:38	16:29	19:47	21:25
27	Su	3:45	5:30	12:38	16:29	19:46	21:24
28	M	3:46	5:31	12:38	16:29	19:45	21:23
29	Tu	3:48	5:32	12:38	16:29	19:44	21:22
30	W	3:49	5:33	12:38	16:28	19:43	21:20
31	Th	3:50	5:33	12:38	16:28	19:43	21:19

[알림]

이 잡지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시거나 또는 이 잡지의 발전을 위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mail: muslimkorea@hanmail.net

아름다운 이슬람

무슬림 월보(MUSLIM MONTHLY MAGAZINE)

NO. 6 히즈라 주마다 알-오울라 1424·서기. 2003. 7. 1

발행처: 한국국제무슬림학생연합회



한국국제무슬림학생연합회

110-611 서울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476호

Homepage: <http://www.muslimkorea.net> E-mail:muslimkorea@hanmail.net

INTERNATIONAL MUSLIM STUDENTS ASSOCIATION OF KOREA
K.P.O. BOX 1476 SEOUL 1476 KOREA

● 이 예배시간표는 특히 서울을 비롯하여 안양, 수원, 인천, 의정부, 광주 등 경기도 지방과 전라북도의 전주 등에서 허용되며 부산시는 이 시간표보다 5분이나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는 2분정도 후에 시작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갖기 위해서 가까운 성원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 This time table for Gyeonggi-do Province like Seoul, Incheon, Anyang, Uijeongbu, Gwangju and also, Chungcheongnam-do, Jeollabuk-do and Jeollanam-do Provinces are same. But Busan city is 5 minutes before this time and Jeju Island is about 2 minutes after this times. For further more information, call nearest mosque.

● The direction of Qiblah in Korea approximately 260° Latitude West.

● Adhan on Jumaah will be called at 13.00 o'clock.



● 책이 필요하신 분은 우편비만 부담하시면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 발행처: 국제무슬림학생연합회